

#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공세」

## <1>

국내 전체 녹용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최근 자신들이 직접 절단·포장한 절편 녹용의 수출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하는 사실상의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수입녹용은 지금까지 전지(월뿔) 상태로 수입돼 국내 제조업자들에 의해 절단·포장된 뒤 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뉴질랜드의 요구에 대해 국내 제조·유통 관련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양육위원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상·중·하대로 자른 절편녹용을 자신들이 직접 포장·수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이 직접 절단·포장한 녹용의 수출이 허용될 경우의 장점으로 △뉴질랜드산 전지 녹용의 외전 위험 감소 △뉴질랜드산 녹용에 순록녹용 불법 혼입방지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보증 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특히 한국의 한약재 규격화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자체 절단·포장하는 제품을 규격화 품목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관련 국내 녹용 수입·제조·유통업체들은 『우리 업체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뉴질랜드의 통상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국내 업체들은 특히 『정부가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 도산, 녹용의 수급조절권이 사실상 뉴질랜드로 넘어가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뉴질랜드 양육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다만 9월말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절단·포장된 절편녹용 수입시의 문제점을 묻는 공문을 각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이 의견조회서에는 절편녹용 수입시 △한약재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품질관리 차원서 예상되는 문제 △규격화 사업 전개와 관련해 국내 녹용 제조업자의 보호대책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뉴질랜드 양육위원회는 최근들어 한의사·약사·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한 면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뉴질랜드 녹용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과 효능이 우수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 <2>

녹용에 관련한 한국은 뉴질랜드 당국자들에게는 대단한 「으뜸고객」이다.

전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한국이 소비하고 있고 그 소비물량중 무려 약 70%가 뉴질랜드산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만 해도 뉴질랜드는 녹용을 그냥 버렸던 나라다.

그러나 대부분 원뿔 모양의 전지상태로 국내에 수입되는 뉴질랜드 녹용은 그동안 국내 업체들에 의해 절단·포장되는 제조·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마진」이 국내업자들에게 돌아갔다.

국내 녹용 수입업자들 중 속칭 「대부」로 불리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은 적지 않은 물량을 △밀수 △순록녹용 섞어 넣기 △돼지피 주입하기 등의 수법으로 엄청난 고마진을 챙기기도 했다.

뉴질랜드 양육업자들은 결국 「품질보증」이라는 명분으로 한국내의 중간 제조·유통마진까지 대폭 줄여 『우수 녹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히든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에대해 관련업체들은 국내 녹용시장의 장악이 「그 진짜 저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질랜드 양육위원회」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라는 점에서 순수 민간기구라기 보다는 정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요구가 사실상 통상압력에 버금가는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밀수녹용 또는 저질·가짜 녹용등이 근절되지 않거나 녹용의 규격화 사업이 앞으로도 지지부진하다면 뉴질랜드 양육업자들의 과상공세를 막기가 힘들어 것으로 우려된다.

### <3>

뉴질랜드 양육업자들이 자국에서 자체·절단 포장한 절편 녹용의 수입을 허용해 줄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관계업계에서는 최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지난 9월 22일 복지부에 제출된 6개항으로 된 이 의견서는 절편녹용의 수입허용이 국내 녹용관련 제조·유통업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반박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견서는 절편녹용의 수입 승인 불가 이유로 우선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이 허용되면 역시 녹용을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문을 열어줘야 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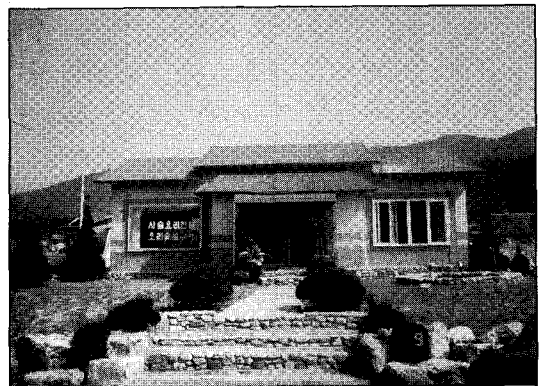
점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내 녹용시장 공급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됨은 물론 중국에는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우려다.

의견서는 또 녹용은 축산물로도 유통되는 만큼 외국의 수입허용을 국내에서 조건없이 의약품으로 관리할 경우 후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단비용·포장비용 및 그에 따른 제세금의 부가로 인한 녹용수입 원가의 상승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지적했다.

특히 절편녹용이 수입허용되면 녹용에 관한 한 한국의 규격화 제도는 사실상 실종되는 것임과 아울러 국가 정책상으로도 관리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견서는 이밖에 한약재의 공정관리는 의약품의 생산관리 기준에 의거, 국내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 포커스

#### 파주시삼조합, 사슴요리전문식당 개업

파주시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환)이 최근 영농조합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슴요리전문식당을 개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메뉴는 사슴샤브샤브, 불고기, 전골, 육회로 한번 다녀간 손님은 그 맛을 못잊어 단골고객이 되는가 하면 아는 사람들을 꾸준히 대동해 온다고 한다.

● 문의전화 : (0348)943-3256